달라이 라마 "中, 불교 파괴…짓밟지 못할 것"

구랍 29~31일 보드가야서 설법
"중국 탄압에 신도들 믿음 커져"
불상 파괴한 중국에 강력 비판도
"결국 우리의 진실이 승리" 강조

박정현 객원기자


달라이 라마가 지난해 12월 23일 인도 보드가야에 도착해 신도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다.
사진출처=달라이라마닷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14대 달라이 라마가 중국의 불교 탄압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1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인디아(Times of India) 등 외신에 따르면 달라이 라마는 전날 인도 북부 비하르주 보드가야에서 열린 연말 법회에서 "중국은 불교를 조직적으로 파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람들의 불교에 대한 믿음은 결코 짓밟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경 비판했다.

달라이 라마는 "중국은 불교에 해를 끼치기 위한 모든 일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고 있다"며 "우리 티베트 주민들은 독살당하는 등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달라이 라마는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사람들 곁에 서 있을 것"이라며 "중국에서도 불교를 믿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자들을 핍박한다고 해서 불교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순 없다"며 "그럴수록 신도들은 부처님 앞에 기도를 올릴 것"이라고 했다.

특히 달라이 라마는 지난 3월 중국이 파드마삼바바 불상을 파괴한 것과 관련해 "중국의 불교 말살 작업의 하나로 중국 내에 지어진 사찰이 허물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드마삼바바는 8세기 때 티베트에 불교를 보급한 인물이다.

또 달라이 라마는 신도들을 향해 "우리는 물리적으로 티베트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떨어져있지만 영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결국 우리들의 진실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보드가야에서 열린 달라이 라마의 설법 행사에는 약 6만 명의 신도가 참석했다. 보드가야는 석가모니 부처가 깨달음을 이룬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 성지순례지다.

앞서 달라이 라마는 지난해 12월 23일(현지시간) 인도 보드가야에 도착했다. 지난 2020년 1월 이후 3년 만이다.

당일 불자들은 공항에서부터 보드가야까지 약 10km 거리에 줄을 서 달라이 라마를 환영했다. 달라이 라마는 새해 첫날인 지난 1월 1일 마하보디 사원에서 신도들과 함께 신년기도를 올렸다. 그는 오는 1월 20일까지 보드가야에 머물 예정이다.

달라이 라마는 1950년 중국의 티베트 침공 후 티베트를 탈출, 1959년 인도 북부 다람살라에 티베트 망명정부를 세우고 비폭력 독립운동을 이끌어왔다.

중국은 티베트를 침공해 병합한 후 자국 영토라 주장하는 한편, 망명 정부를 세운 달라이 라마를 '조국 분열 활동가'로 규정하고 달라이 라마와 불교를 탄압했다. 이에 국제사회는 티베트의 종교적 자유를 제한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중국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지만, 중국은 안하무인격이다.

급기야 중국 네티즌들은 지난해 미국 할리우드 스타 키아누 리브스의 티베트 관련 자선 행사 참석을 비판하며 영화 '매트릭스' 보이콧 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인도 나란다 불교 전통의 인도히말라야평의회(IHCNBT)는 지난달 15대 달라이 라마의 승계 계획과 관련해 "달라이 라마는 영적 존재의 환생으로서 고유한 종교적 관습이자 내세의 철학이다"라며 "어떤 정부나 개인도 이 문제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는 중국이 과거 달라이 라마를 중국 황제가 지명했다고 주장하며 차기 달라이 라마 지명에 개입하려는데 대한 반발 조치다.

"소외계층에 '광명'을"

인도 내 비영리단체 FHSM
연말 무료 안과 검진소 운영


FHSM 활동 모습. 사진출처=FHSM

인도의 불교 비영리단체인 FHSM(Foundation of His Sacred Majesty)은 지난해 연말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안과 검진을 실시하는 자비행을 실천했다.

불교 온라인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st Door)가 지난해 12월 2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FHSM은 지난해 12월 25일 연말을 맞아 지역 안과 병원과 연계해 인도 남부 타밀 나두(Tamil Nadu)에서 무료 안과 검진소를 운영했다.

FHSM의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라울 야시와단(Rahul Yashwardan)은 "무료 안과 검진소 운영 기간 동안 총 357명의 수혜자가 검진을 받았고 이중 28명이 백내장 수술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74명에게는 안경을 지원하고, 84명은 추가 진료를 위해 상급 의료기관으로 보내졌다.

FHSM 회장 가우타마 프라두(Gauthama Pradu)는 부디스트도어와의 인터뷰에서 "실명은 인간을 가장 쇠약하게 만드는 장애 중 하나"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인구 중 1억8000만명이 심각한 시각적 장애를 앓고 있다고 추정한다. 주요 원인은 백내장이며, 실명 인구의 90%는 개발도상국에서 발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명의 약 80%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백내장은 인도에서 달릿 계층 등 소외계층이 많이 앓는 질병 중 하나다. 교육과 의료에 대한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서서히 시력을 잃다가 완전히 실명하게 되는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FHSM는 앞으로 매년 10차례 가량 무료 안과 검진소를 운영할 것을 약속한다"며 "우리의 목표는 백내장으로 인한 후천적 실명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프로젝트를 통해 시력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FHSM는 이외에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약 7번의 무료 안과 검진소를 운영, 총 2500명의 수혜자를 치료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라면 가게로 변신한 日 사찰 '화제'

중요 문화재 보존위해 라면 판매
채식 재료 사용…SNS로 입소문

"마치 까르보나라 같아요. 이런 라면은 처음 먹어봤습니다. 영혼까지 스며드는 맛입니다."
-수도 후쿠코(79, 교토 후시미구 거주)


채식라면 판매로 화제가 된 호조인 사찰. 사진출처=아사히 신문

일주일에 세 번, '라면 가게'로 변신하는 일본의 한 사찰이 화제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1월 3일 "일본의 유서 깊은 한 사찰이 '한정판' 비건 라면을 파는 식당으로 탈바꿈했다"며 교토의 호조인(Hozoin) 사찰을 소개했다.

호조인 사찰은 일주일에 3번 오전 11시 일본식 라면인 '테라소바'를 판매한다. 단 호조인 사찰의 테라소바는 시중에 판매되는 라면과는 다르다. 동물 살생을 금지한 불교 교리에 따라 만들어진 채식 라면이기 때문이다.

호조인 사찰은 푸드컨설턴트 출신인 한 신도의 도움을 받아 자체 레시피를 개발했고, 인근 가게에서 구입한 된장과 두유 등을 듬뿍 사용한다. 일반적인 일본식 라면에는 육수를 우려내기 위해 '돈코츠'(돼지뼈)와 '토리가라'(닭뼈 등)를 사용하지만 이러한 재료는 일절 사용되지 않는다. 흔히 고명으로 올라가는 '차슈'(중국식 돼지고기 구이)도 찾아볼 수 없다.

대신 호조인 사찰의 비건 라면에는 죽순과 옥수수, 미역, 고추 등 토핑이 올라간다. 각 토핑은 불교적 의미를 담아 '오색'(청색·적색·황색·백색·흑색) 재료를 사용한다.

특히 흑후추와 비슷한 대만 향신료인 마가우가 호조인 사찰 비건 라면의 '비법'이다. 파스타의 일종인 까르보나라와 비슷한 식감이어서 일반 라면보다 젊은 층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

주지 스님은 코도 모리이(Kodo Morii)는 "처음 문을 열었을 땐 단 한 명의 손님만이 왔다"며 "SNS 등을 통해 입소문을 타 지금은 더 많은 손님들이 방문하고 있다"고 웃어보였다.

직접 식품위생감독 자격증까지 취득한 스님이 처음 라면 판매를 시작한 계기는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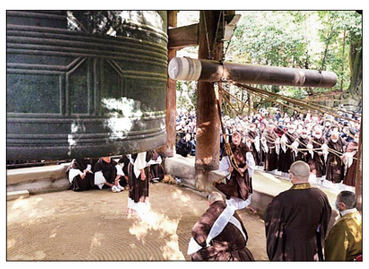
바로 호조인 사찰에 보관된 중요문화재인 'Tetsugenban issaikyo hangi' 보존 작업을 위해서다. 해당 문화재는 에도 시대(1603~1867)에 호조인 사찰을 창건한 테츠겐 도코(1630~1682)의 바람에 따라 제작된 경판이다. 그러나 마땅한 경판전을 마련하지 못해 보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에 호조인 사찰은 문화재의 복구 및 보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라면을 판매하면서 문화재 보존의 중요성도 널리 알리고 있다.

호조인 사찰 라면 가게는 매주 목~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루 30그릇만 한정 판매하며, 3월 21일까지만 운영된다. 이후 봄철에는 간장 라면을, 여름철에는 젓갈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박정현 객원기자

세계 각국 불자들, 새해 축하

일본, 70톤 종 108번 타종
태국에선 장례의식 체험도


교토서 열린 108타종 행사. 사진출처=아사히신문

세계 각국 불교도들이 다양한 방식의 새해맞이를 통해 2023년의 시작을 알렸다.

일본 교토 초온인 사원에서는 높이 3.3m, 무게 70톤에 달하는 대형 종을 108번 울리며 새해의 시작을 알렸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객은 1000명으로 제한했지만 유튜브를 통해 의식을 생중계했다. 동참자들은 "새해를 시작하는 종소리로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질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태국에서는 새해행사로 불자들이 스님이 집도하는 장례의식을 체험하는 행사가 열렸다. 입관 체험을 통해 삶과 죽음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진 참가자들은 "윤회와 카르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겔룩국제재단은 1월 1일 인도 부다가야에서 새해맞이와 함께 달라이 라마의 장수를 위한 기도회를 봉행했다. 기도회에는 1만 600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